

한국농산물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수출농산물 개발

(재)국제농업개발원
원장 이병화

무한경쟁의 국제화시대에는 국경주의는 침몰하고 민족주의는 돌출한다. 그러나 민족의 응집력은 바로 그들의 토종농산물을 섭취했을 때만 비로소 나타난다.

●무한경쟁의 국제화시대에는 품질경쟁과 가격경쟁의 확연한 구분을 필요로 한다.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우리 농업부문에 있어서도 국제경쟁력의 제고가 당면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국제경쟁력의 제고, 이는 우리 농업이 살아남기 위한 절대절명의 과제임에는 분명하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가격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과 품질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있다. 정부는 가격과 품질경쟁력을 동시에 제고시키고자 갖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가격경쟁력과 품질경쟁력을 한꺼번에 강화하고자 한다면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적지않은 부작용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가격경쟁력은 생산성과 요소가격에 의해 결정된다. 우리 농업은 그간 증산위주의 정책에 힘입어 어느정도 생산성이 향상되어 왔다. 그러나 한정된 토지에서 부족한 노동력 그리고 자본부족 등으로 요소비용은 대단히 높은 편이다. 그러나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진다면 생산비를 절감시킬 방안은 다양하고 이를 통한 생산성 향상의 여지는 있다고 본다.

비근한 예로 개별 농가가 경영하는 농지구모를 들 수 있는데, 요즘 정부를 포함한 일각에서는 국제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워 '기업농 육성'을 외치면서 경지구모 확대를 추진하고자 한다. 그런데 분산되어 있는 만평보다 한곳에 모여있는 삼천평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아야한다. 이를 위한 보완대책없이 농가구모의 확대가 곧바로 생산성 향상과 직결되지 않는다.

가격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시설현대화로 영농에 부담이 되고 있는 노동비용을 줄이는 것과 첨단기술 개발로 단위당 생산량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가격경쟁력은 시설현대화를 통해 직접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첨단기술 개발로 간접적인 효과를 거양할 수 있다는 것이다.

품질경쟁력을 제고하는 길은 우리나라 천혜의 기후와 토지 등 자연조건을 이용하는데 있다. 지적인 바와 같이 주어진 요소비용하에서 생산성 향상이 어느정도 한계에 다다르면 가격경쟁력제고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품질경쟁력을 제고하는 방안은 생각하기에 따라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품질경쟁력은 생산물 자체의 품질뿐만 아니라 생산 이후 상품화 되기까지의 품질 향상을 위한 방안도 있을 수 있다. 여기에는 생산물의 정선, 표준, 규격화, 포장 등과 같이 품질 외적인 면에서 상품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도 포함된다.

이와는 별도로 경쟁력이 없는 품목을 가공하여 다른 형태의 상품으로 개발하는 기술도 필요하다. 그런데 품질향상 및 가공 그리고 시설현대화 및 첨단기술 개발은 각기 경쟁력 제고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

한국농산물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있어 가격과 품질을 분리육성, 다시 말해 품목별 지대별로 나누어 경쟁력 제고방안을 선별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즉 어떤 것에 대해서는 가격경쟁력을, 그리고 어떤 것에 대해서는 품질경쟁력을 우선적 내지 집중적으로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경제수준이 높아질수록 품질의 등급화, 차별화, 구분화 현상은 심화된다. 그리고 경쟁력 제고와 관련하여 가격차별화가 먼저 정착되어야 한다. 이의 선결요건은 다름아닌 품질의 차별화이다.

올해들어 담배, 대중 교통요금 등 몇몇의 공공요금이 인상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특 징적인 것은 가격의 차별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500원짜리 '솔'담배가 200 원으로 인하 되었는데 800원짜리 '하나로'담배는 1,000원으로 인상되었다. 대중교 통요금에 있어서도 과거에는 버스면 입석이나 좌석버스나에 따른 정도의 차이만 있었다. 그리고 이와 마찬가지로 택시, 기차, 여객선, 여객기 등도 탑승선택의 폭이 넓지 않았 다. 그러나 이제는 기차만 보더라도 비둘기호에서 새마을호까지, 거기에다가 침대칸인지 아닌지, 특석인지 등에 따라 요금의 차이가 있다. 승객은 자기 선호에 따라 이를 선택하 고 나름대로의 만족을 얻게된다. 승용차에 있어서도 모회사 경우 티코라는 800cc 국민차 에서 일반서민의 주택값을 호가하는 아카디아라는 3,200cc 고급차를 생산하고 있다.

농축수산물에 있어서도 과거에는 소고기, 돼지고기 모두 부위별 가격차이가 없어 단 골손님인 경우에는 같은 값에 좋은 부위를 구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소고기만도 국거리와 차돌백이는 값의 차이가 약 17배, 돼지고기도 내장과 갈매기살의 값차이는 약 13배에 이르고 있다. 이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하루빨리 우리나라 농산물도 차별화, 등급화, 구분화 정책이 뿌리를 내려야한다.

동양의 신비를 수출상품으로!

●수출농산물의 구조

한국 수출농산물의 상대국은 세계 최고의 경제와 문화를 자랑하는 일본, 미국, 유럽 (EU)등이며 특히 일본을 제외하고는 백인국가이고 이들 국가들은 동양의 반대인 서양이 다.

한편 한국의 수출 농산물은 신선농산물이건 가공농산물이건 간에 부피에 비교하여 가 격이 매우 높아 신선도나 수송일자에 관계없이 수송은 대부분 항공편을 이용한다.

이것은 농산물 수출에 매우 중요하다.

수출농산물 중 부피가 많은 것은 대체로 가격이 낮다. 대표적인 것이 미국의 곡물류(밀, 옥수수, 콩 등 주로 사료작물)인데 이것은 선박으로 운반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어음결제이므로 대금회수가 대단히 완만하다.

반면에 가격이 비싼 것은 부피 또한 작아서 항공편으로 운반하기 때문에 대금회수가 매우 빠르다. 예컨대 미국에서 네덜란드로 수출하는 옥수수의 경우 미시시피강 하구에서 선적하여 대서양을 17일간이나 항해하여 네덜란드내의 항구에 도착시키는 가격은 t당 100달러가 조금 넘는 가격이지만 90일 어음을 받기 때문에 실제로 돈을 받는 일자는 항해일자 17일에 90일을 더한 107일 걸린다.

그러나 네덜란드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백합 중에서 '카사블랑카'는 1단(10대 묶음)에 무게는 불과 1kg이지만 가격은 100달러다. 물론 항공편이고 90일자리 어음도 아닌 현금을 하루만에 받는다. 그러니까 양국의 수출농산물을 비교하면 부피는 1/1000배 대금회수기간은 1/107배인데 가격은 같다.

한국의 농산물은 네덜란드의 꽃과 같은 항공편의 운반구조이고 하루만에 결제가 가능한 신속한 대금회수형이므로 국제경쟁력이 매우 높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서양은 과학으로 풀 수 없는 동양의 신비를 동경한다.

과학이 발전한 미국과 EU 등은 인간이 과학으로 도저히 풀 수 없는 동양의 신비를 좋아한다. 마치 동양에서 서양의 문화와 과학을 동경 하듯이... 그러므로 한국은 신비를 수출하여야 한다. 같은 동양속에서도 한국만이 특별한 것 바로 그것이 무한경쟁의 국제화시대에 한국농업을 살리는 길이다. 그러면 금방 손꼽을 수 있는 것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인삼이다.

인삼은 중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심지어 서양인 미국과 독일, 러시아에서도 재배된다. 그러나 인삼은 오로지 동양이어야 하고 세세 최고의 품질은 당연히 남북한을 합한 고려인삼이다. 그러나 이것을 홍삼, 백삼 및 드링크 등으로 가공을 하면 구별이 없어진다.

가공하지 않고 밭에서 바로 캐낸 신선 인삼뿌리를 서양의 가정에서 또는 열대지역인 동남아시아의 가정에서 믹서나 녹즙기에서 갈아 마실 수 있는 유통체계만 개발하면 시장은 무궁무진하다. 왜냐하면 정력식품과 장수식품으로는 인삼이 최고이기 때문이다.

왜 같은 동양인데도 인삼은 중국산과 일본산보다 한국산이 좋을까?

그것은 자연적인 기후와 토양에 절대적인 원인이 있겠지만 과학으로는 풀지 못하는 부분을 한국은 더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구촌 가족의 건강을 위해, 인간의 수명연장을 위하여 인삼수출은 자유화시켜야 하고 특히 세계각국의 해외 지사망을 구축하고 있는 종합상사에서 깊이 관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음으로는 신고배와 작약, 백합, 단감, 관상용 조류, 모피, 산초 그리고 발효식품(김치류)등이다.

구체적으로 논해보면, 과일인 신고배, 단감 그리고 후지사과는 일본에서 개발되었으나 한국에서 생산되는 신고배는 일본산보다 훨씬 향이나 맛이 우수하고 경남 진영지방에서 생산되는 단감은 일본산보다 약간 우수하고 전국적으로 생산분포를 가지고 있는 후지사과는 중국산보다는 우수하지만 일본산과는 비슷하다.

또, 작약(합박꽃)과 백합(오리엔탈계)은 향기와 색상이 일본산이나 중국산보다 월등히 우수하여 세계최고의 신비를 자랑한다.

향신료 및 양념류로 인기가 날로 부상하고 있는 산초(한국에서는 초피라고 함)의 잎이나 껍질, 열매 등은 이제 명실상부한 지구촌의 향신료로 자리잡고 있는데 이것은 한국의 지리산 부근에서 생산되는 것이 품질면에서 세계 최고이고 중국산과의 가격 차이는 무려 3배에 달한다.

한편 사계절이 너무나 뚜렷하여 여름철 무더위 속에서 털갈이를 완벽하게 하는 모피 동물들은 앞으로 사계절용 의복으로 패션의 총아로 등장할 것이며 같은 동물이지만 아름다운 자태와 목소리를 제공하는 관상용 조류(카나리아 등)는 한국산이 최고인 것이 이미 일본시장에 정평이 나있다. 일본의 관상용 조류시장은 연간 무려 8백억엔에 달한다. 특히 카나리아의 경우 원산지에서 수입하여 일본에서 성장한 것과 한국에서 성장한 것의 목소리 비교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나기때문에 한국에서 2-3대까지 번식한 후에 일본에 나가야 한국의 것처럼 아름답고 청아한 울음소리를 낸다.

이것 또한 자연의 혜택이다. 마치 매미와 귀뚜라미의 울음소리가 세계적으로 한국의 것이 가장 아름답고 청아하듯이.

또 서양에서의 육류 발효품과는 달리 식물성 발효식품인 김치류는 21세기의 건강식품과 다이어트식품으로 일본과 중국의 장아찌류와는 전혀 다르다. 그리고 한국산이 향미가 최고로 인정되는 고추가루, 마늘 등의 양념류가 중국산과 혼합되면 그만 고유의 맛을 잃어버린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이것의 유사품을 막는 방법도 강구해야 한다.

● 먹는 농산물은 有限소비재이고 듣고, 보고, 맡는 농산물은 無限소비재이다.

먹는 음식은 유한하다고 한다. 배가 부르면 소화가 될때까지 다음 음식은 먹지 못하지만 보고, 귀로 듣고, 향기를 맡는 농산물은 먹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보는 농산물의 대표적인 꽃은 많이 볼 수록 좋고 고급스러울수록 좋다. 귀로 듣는 아름답고 청아한 관상조류의 울음소리는 들을수록 좋다.

당연히 코로 맡는 향기는 두말할 나위가 없다.

‘보는 것, 듣는 것, 냄새 맡는 것’과 관련된 농산물은 먹는 농산물처럼 절대로 배가 부르지 않다. 바로 무한 소비재이기 때문에 많을수록 좋다.

우리 농산물 수출상대국은 모두가 선진국이다. 선진국들은 유한 농산물인 먹는 것보다는 무한소비농산물에 더 많이 투자한다.

예컨대, 일본, 스위스, 프랑스, 미국(뉴욕)등의 소비자(구매자인 가정주부)들은 가족들의 식생활을 위한 먹는 농산물 구입금액보다 꽃이나 애완용 조류 등의 구입비가 훨씬 많다. 이러한 일들은 세계적으로 확대되지 절대로 축소되지는 않는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수출농산물은 먹는 농산물보다는 보는 농산물, 그중에서도 동양의 신비로운 꽃인 작약과 동양계 백합(카사블랑카, 루랩, 하늘말나리 등)을 보내고 동양인 일본에는 서양의 대표적인 꽃인 장미, 카네이션, 튜립 등을 그들의 구미에 맞게 개량하여 보내야 한다. 아울러 아름답고 청아한 목소리의 관상용 조류와 음식문화 발전에 앞으로 가장 비중이 높아질 향신료의 개발은 지리적, 계절적, 풍토적으로 한국이 세계최고이므로 수출 농산물 개발은 우리의 자연과 결합된 것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네덜란드가 꽃 수출국가로 발전한 것은 상기내용과 같은 무한 소비농산물을 개발하다 보니 꽃의 나라가 되었다. 한국도 제2의 네덜란드가 될 수 있다. 신(神)은 우리에게 더 좋은 자연을 주었기 때문이다.

●일본으로의 수출(먹는 농산물)은 한시적일 뿐이다.

식물성 발효식품인 김치류, 장류 등을 제외한 먹는 농산물인 시설재배에서 생산되는 오이, 미니토마토 등과 노지에서 재배되는 양파, 단호박, 양배추 등은 모자라는 양만큼만 수출되는 부족물량의 총당용인데 앞으로 5년 이후에는 어렵다. 왜냐하면 일본은 중국에 이미 개발수입을 위한 시설투자를 개시하여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피망과 아스파라거스, 가지 등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중국에서 재배한 값싼 농산물을 한국에도 팔려고 우리의 뒤통수를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같은 동양인 일본에 팔 수 있는 항구적인 농산물은 발효식품인 김치 및 장류와 보는 농산물인 꽃과 듣는 농산물인 관상 및 애완용인 조류뿐이다.

그러므로 청과류, 견과류 등은 중국시장으로 대체까지의 한시적일 뿐이다.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진행하여야 한다.

●한국인 손재주와 중국산 원자재농산물이 결합하면 국제경쟁력있는 제품이 나온다.

미래경제학자 '앨빈 토플러'는 '일본인은 나무젓가락을, 중국인은 대나무젓가락을, 한국인은 쇠붙이젓가락을 사용하는데 미끄러운 쇠붙이 젓가락으로 콩을 집는 것을 보면 한국은 손재주가 가장 섬세한 것 같다'라는 말을 했다. 러시아의 자동소총제조 전문가인 '쿠시도프'는 세계적으로 M-16자동소총을 단발로 발사할 수 있는 군대는 한국 뿐이라는 말을 했다. 이것 또한 조직적 훈련과 손재주의 섬세함을 의미한다.

값싸고 부피많은 중후장대형의 중국원자재농산물을 이용하여 자유무역단지에서 소분하고 가공하고 단장하는 등의 한국인들의 손재주에 의하여 재생산되는 경박단소형 이것은 바로 선진국 수출상품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의 토산품과는 또다른 형태의 수출품이며 보세가공과는 분명히 다르다. 여기에 조직된 재벌들의 합류가 이루어지면 한국은 바로 가공복합무역국가로 발돋움하여 21세기가 되기전에 세계무역순위 7위내에 진입할 것이다.

●중국이 화교를 활용하듯 우리는 해외동포를 활용하여야 한다.

동양에서 한국은 중국 다음으로 해외교포가 많다. 특히 세계4강(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에 몰려살고 있는 이들은 무려 500만명이나 된다. 우리는 이들을 활용하여야 한다. 이들을 우리 농산물의 수출최일선의 특공대로 활용하여야 하는데, 통치자의 따뜻한 배려와 포용은 이들을 감탄케 하고 흥분시킬 수 있다.

● 무엇이 수출농산물인가 결론을 내려보자.

바로 동양의 신비로움 중에서도 한국의 것이 일본이나 중국것보다 더 좋은 인삼같은 것과 값싼 중국원자재와 한국의 손재주가 결합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리고 부피가 작고 값이 비싸 항공편으로 운반하는 것과 해외 교포들이 자신있게 팔아 줄 수 있는 것들이다. 한국은 모든 여건을 가지고 있다. 정책적인 배려만 따르면 한국의 농민은 가장 행복해질 수도 있다.